



전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사진은 위치도.

<사진=정동영의원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재시동’ LH·전주시, 외부 교통개선 합의

정동영 의원 중재로 사업 재개
덕진 우아1동 주민설명회 열어
2027년 보상 시작, 본격 추진
초포다리·지하차도 확장 반영

전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정동영 국회의원의 결단과 협상 및 중재로 본격적으로 재추진된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전주시와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송영환 LH 전북본부장, 장재마을 주민 및 전주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역세권 인근 106만㎡ 부지에 조성될 주거단지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과 교통대책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주역 뒤편 역세권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이었으나,

2020년 이후 주택공급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주역세권 인근 약 106만㎡ 부지에 임대주택 공급 등을 담당할 LH와 전주시가 주민들께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LH는 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내부의사결정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LH는 2027년부터 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 절차에 추진한다.

전주시도 외부 교통개선 대책을 통해 △초포다리로 확장 △초포다리로 확장(1.8km, 2→4차로) △전진로 확장(0.6km, 4→6차로) △동부대로 진입로 확장(2개소, 총 0.4km, 2→4차로)을 LH 전액부담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했고 △동부대로 지하차도 신설에 대한 LH의 분담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전주역세권

인근 우아동, 호성동 인근 약 106만㎡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약 7천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세권 개발이 멈춘 원인은 외부교통개선 대책을 두고 LH와 전주시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국토부와 LH, 전주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중재한 끝에, 올해 1월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사업이 재착수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설명회에서 “전주역 뒤편 역세권은 2018년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이었지만 2020년 이후 주택공급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담보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외부교통개선 대책을 두고 LH와의 이견이 있었지만, 본인이 국토부와 LH, 전주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중재한 끝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사업이 재착수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道, 금융중심지 청사진 제시…자산운용 거점 조성

서울서 특화정책 비전 발표
자산운용 인재·기업 유치박차
여성금융인파 정책 소통

전북자치도가 자산운용 중심 금융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전국 여성 금융전문가들과 공유하는 등 정책 실행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여성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특화도시 조성 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여성 금융산업 전문가들과 정책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전국 단위 행사로, 금융기관 지점장·부장급 이상 여성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금융산업 발전과 정보교류,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킹 중심으

로 진행됐다. 여성금융인네트워크는 2003년 설립 이래 금융 전문 여성 인재 양성과 업계 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포럼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금융교육 강화를 주요 축으로 하는 중장기 금융특화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사안으로, 전북자치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년~2028년) 반영을 목표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에 계획을 제

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전국 여성 금융전문가들과의 정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들과의 정례적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제언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 리더들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금융은 인재 중심 산업이며, 전북은 국민연금을 보유한 자산운용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여성 금융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이 전북의 금융도시 도약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자산운용 기능은 전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금융특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민 기자

국내 홍보 캠페인 본격화
축제,스포츠 등 채널 다각 활용
일상속 ‘유치 희망’ 메시지

전북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홍보 캠페인을 본격화하며 전국적인 유치 열기 확산에 나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규정에 따라 해외 직접 홍보는 제한된 상황에서, 전북도는 국내 언론·광고 매체·대규모 행사 등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전주의 문화·관광·한식·스포츠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버스 램핑, 고속버스터미널, KTX 역사,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 요충지와 전국 승강기, 포털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통해 전주 올림픽 유치 도전을 알리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1만8천여 개 CU 편의점 점포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

및 LED 전광판 홍보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청 분관 1층 홍보관은 이달 중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Life is the Olympics’를 주제로 한 이 공간에는 전주 유치 3대 전략과 추진 방향, 경제·문화·관광 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구성해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방문객에게 올림픽 유치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알릴 계획이다.

여름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형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도 강화된다. ▲춘천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7.15~20)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7.17~22) ▲전북현대 홈경기(7.23) ▲보령 마드 축제(8.1~3)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8.21~22) 등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에서 현수막, 리플릿, 포토존,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전주 유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현대 홈경기장에서는 ‘쏿! 골인 챌린지’, ‘올림픽 퀴즈 이벤트’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열기와 SNS 확산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온라인 중심의 국민 참여 캠페인도 이

어진다.

SNS 인증 캠페인, ‘올림픽 데이런(Day Run)’,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전국적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세계양궁선수권대회(9.5~12) ▲전국체육대회(10.17~23) 등 대형 스포츠 행사와의 협업도 확대해 유치 분위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식 해외 홍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K·문화·한식·관광·스포츠 자산을 활용한 간접적 국제 홍보도 병행한다. 국제 스포츠대회, 국제박람회 등에서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와 SNS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전주의 문화적·도시적 매력을 세계에 알릴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앞으로도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 고리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5종 표준 실화재 훈련장’ 전국 최초 장수에 구축

실화재 전담교관 파견 실전형 화재훈련 현장 대응역량 극대화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8일 장수군에 전국 최초로 ‘5종 표준 실화재 훈련시설’을 모두 갖춘 실전형 훈련장을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어택, T셀, 멀티스토리셀 등 실화재 대응 훈련의 국내 표준모델로 꼽히는 5종 훈련시설을 한 곳에 갖춘 첫 사례로, 규모와 구성 모두에서 상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훈련장은 장수군 계남면 소방교육대부지 내 약 8천㎡(2천400여 평) 부지에 들어섰으며, 총 39억 7천만 원(국비·도비·소방교육세 포함)이 투입돼 2024년 1월 착공했다. 전국 실화재 훈련장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다.

전체 단지는 5종 표준 훈련시설 외에도 △농원훈련장 △가스탱크 훈련장 △제독설비 등 훈련 지원시설 7종과 △디브리핑실 △회복실 △공기호흡기 충전실 등 부대시설 6동까지 더해 총 18종의 설비로 구성됐다. 훈련 후 피드백과 회복 과정까지 염두에 둔 설계가 특징이다.

실제 화재 조건을 정밀하게 구현해 개인별 훈련은 물론 팀 단위 전술훈련까지 가능한 구조로 조성돼, 대형 재난 발생 초기 대응력과 현장 자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는 훈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실화재 전담교관’ 8명을 선발해 별기에 국제공인 훈련기관 ‘캠퍼스 베스타’에 파견했다. 교관들은 CFBT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 공인 커리큘럼을 이수했으며, 앞으로 전북 훈련장에서 실화재 훈련을 전담하게 된다.

오는 14일부터는 세계적 실화재 훈련 전문가 선 라텔을 초청해 실전형 화재 훈련도 진행한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장은 실화재 훈련시설의 전국 표준모델이자 최고 수준의 교육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도내 기업 자체소방대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도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수했으며, 앞으로 전북 훈련장에서 실화재 훈련을 전담하게 된다.

오는 14일부터는 세계적 실화재 훈련 전문가 선 라텔을 초청해 실전형 화재 훈련도 진행한다.

이오숙 도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장은 실화재 훈련시설의 전국 표준모델이

자 최고 수준의 교육 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은 물론 도내 기업 자체소방대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도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우리가락 우리마당 新명불허전’ 공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도청 야외공연장서 열려

전북자치도는 ‘2025 우리가락 우리마당 新명불허전’을 오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과 (사)전통문화마을이 주관하는 도 대표 전통예술 상설공연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역량 있는 전통예술가들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해 공연은 우리의 다양한 일상 속 생각과 감성을 국악으로 풀어내며 공감하고 치유하는 고품격 전통예술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내어 이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탬 예정이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총감독을 맡은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을 김진형 이사장은 “상설형 공연을 월별 주제가 있는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며, “올해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바람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도민들의 자부심과도 같은 공연이다”며 “많은 도민들이 공연장을 찾아 우리 가락의 신명과 감동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만족도 ↑

시행 1주년 도내 70여명 서비스 이용 긍정적 변화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며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안겨준 이 사업은 ‘삶을 바꾸는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에서도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도는 맞춤형 1:1 방식의 개별 또는 그룹 돌봄을 통해 낮 활동은 물론, 주거와 야간 돌봄까지 연계한 통합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 11개 시군 20개 기관에서 총 70여 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보호자들은 “홀로 감당하던 돌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휴식을 되찾았다”며 달라진 삶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전주시의 한 보호자는 “자녀의 도전 행동으로 일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고 오롯이 돌봄을 혼자 감당해 왔다”며 “통합돌봄 이후에는 자녀가 기관에서 안전

하게 보호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쉬 수 있어 삶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도는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등으로 유형을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1만4천40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를 차지하며, 이 중 성인은 1만 500여 명이다.

이들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는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현재 전주·군산 등 2개소에서 24시간 개별형, 전주·익산·남원·완주 등 8개소에서 개별형 주간돌봄을, 그리고 전주·김제·무주·임실·진안 등 10개소에서는 그룹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읍시는 하반기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윤효선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내실 있는 운영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 유통 선택 아닌 필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에 부딪혀 수질이 악화했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데도 해수 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해 새만금 해수 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박찬대 “지선 압승 이재명 정부 성공 이끌 것”

“전북 성장의 중심으로 정치적 역량 집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뿌리인 전북이 더 이상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에 지났지만 실질적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K-문화와 에너지가 진짜 소득이 되는 전북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북 발전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전북 성공을 위해 △2036



박찬대 의원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등을 제시했다.

특히 “K-컬처와 에너지가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전북의 문화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실제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서 자리잡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언급하

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한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의 전북 비전 구상 설계에 함께한 안호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다양한 정책 사업이 전북 발전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려면 중앙당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전북이 새로운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박찬대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주민참여형 문화기반
마을문화 프로젝트 본격 출발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8일,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기억을 문학과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는 주민참여형 문화기반 사업이다.

올해는 △무주·진안·장수 △임실·순창·남원 △고창·정읍·부안·김제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마을문화의 가치를 발굴한다.

이경윤 대표는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는 지역의 삶과 이야기를 주민의 목소리로 기록하고, 이를 문학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구제역 유포 선제 대응 ‘청정지역’ 유지

전국 위기경보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가 지난 3월 전남에서 시작된 구제역 확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선제 대응을 통해 도내 발생 없이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했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추가 감염 사례가 없고,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내 조치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 8일부로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전국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다.

도는 구제역의 도내 유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소와 염소 54만 5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2주 만

에 일제 접종을 조기 완료했다.

또한, 가축 이동에 따른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구제역이 돼지까지 확산됨에 따라 전남 발생 시군에서의 돼지(생축·분뇨·정액) 반입·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사료 공급 차량의 교차 출입을 막기 위해 전남 발생 시군에는 도내 6개 사료회사의 전담차량 28대를 지정·운영했으며, 이 차량들은 공급 후 거점소독시설을 2회 거쳐 철저히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는 도민과 축산농가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방심 없이 방역 태세를 유지,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는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1.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2. 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3. 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럼증, 의식 혼란 등

4. 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전기안전공사, 전북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원금·맞춤 혁신컨설팅 제공 지역업체 글로벌 입점 지원 상생누리 통해 지원 확대

도내 중소기업들의 지속성장에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납화영 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 위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등

상생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오는 18일까지 상생누리(wininnuri.or.kr) 플랫폼을 통해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대상 7곳을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은 △일·가정양립 지원 △신제품

개발 △마케팅 개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지원 등 기업의 필요에 맞춘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여기에 '전북 농어업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 우수 업체 12곳을 대상으로 K-푸드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월 방문자 수 3억 명 상당의 글로벌 쇼핑몰 '쇼피'(Shopee)에 K-농어촌 식품관을 만들

어 입점부터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배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기안전공사 누리집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산물로 '나만의 맞춤형 건강식품' 만든다

정밀영양기술 접목 세미나 맞춤형 기능성 식품 개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개인맞춤형 식품개발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정밀영양 기반의 지역 농산물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업기술원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밀영양 기술과 국제농업 트렌드 융합 전략의 주제로 논의했다. 또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식품의 기능성과 영양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품을 개발·제공하는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현재

도내 주요 농산물의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며, 향후 기능성 성분까지 분석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 효능 기반 데이터를 정밀화하고, 제품화와 산업화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서경원 작물식품과장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식품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정밀영양 기술과 지역 농산물의 접목은 농업의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도내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업기술원은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개인맞춤형 식품개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농기원>

농촌진흥청, 간척지 구조물 안전 시공 공법 개발

'고성능 복합기동 공법' 시공비 75% 절감·안정성 확보

간척지 구조물 설치시 무른 지반 특성상 침하 위험, 시공 난이도 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콘크리트(PHC) 기동' 공법은 침하 안정성은 확보되나, 온실 1헥타르(ha)당 25억 원 이상 기초 공사비가 드는 게 단점이다.

'나무 기동' 공법은 초기 비용은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하수위 노출부 나무가 썩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초기 비용이 적은 나무 기동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결합한 온실 기초 보강 공법('복합기동')을 개발해 새만금 원예단지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실증했다.

항공기와 수소 저장 용기에 사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간척지 같은 염분이 많은 환경에서 견디는 내식성과 강도가 우수하다.

복합기동을 활용하면 온실 시공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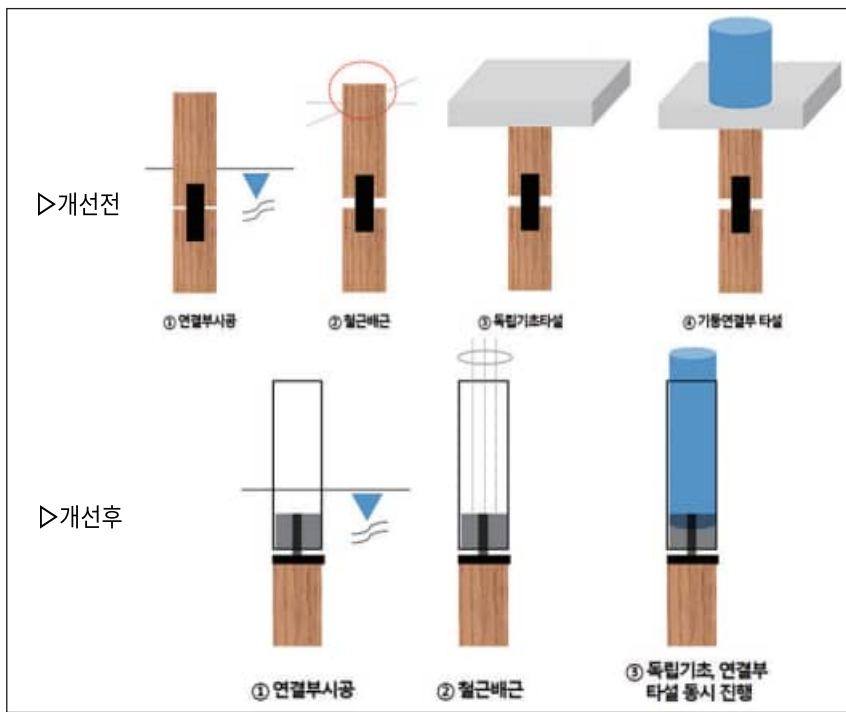
1헥타르(ha)당 약 6.1억 원으로, 기존 콘크리트 기동 공법 대비 약 75% 절감된다.

기동 연결 부위의 점착력 및 마찰력을 나타내는 인발저항력은 나무 기동에 비해 약 48.2% 향상돼(22.4kN→33.2kN) 강풍과 외부 하중에도 구조물이 견딜 수 있게 하는 내력이 강하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연구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군산, 부안 등 새만금 간척지 3개 원예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실증시험 결과, 복합기동 공법으로 시공하면 20년 동안 예측 침하량이 0.52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 기준인 25.4mm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복합기동은 중형 굴삭기(1.0m3 이하)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간척지는 물론 일반 농촌지역이나 산지,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등 다양한 지형에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 5월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국제 학술지 '카본



농진청 개발 '고성능 복합기동 공법' 개선 전과 후

<사진=농진청>

(Carbon)'(IF 10.5) 등에 관련 SCI(E) 논문 총 4편을 게재했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센터 고종철 센터장은 "이번 기술은 간척지처럼

시공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핵심 대안

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무더위에 풀과의 전쟁에서 콩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있는 농촌의 구슬땀

<사진=전북농기원>

폭염에도 일손을 멈출 수 없는 농촌

농촌은 지금

매년 장마는 이모작 보리와 밀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올해는 1주일 이상 빨랐고 첫날부터 폭우가 내렸다. 일찍 시작한 것 만큼 길고 많은 양이 내릴 것만 같았지만 단발성 일일 폭우로 끝이 났다. 이 시기는 보리·밀 수확을 하고 논콩을 준비하는 단계였으나 모든 농작업을 일시에 멈춰 세웠다. 뜻밖에 내린 비는 일년의 영농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농촌의 현장에서는 슬기롭게 대체 작목을 찾아 영농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장마가 끝나고 불볕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더위 속에서도 농작물의 생장은 멈추지 않고 관리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힘들게 영농을 시작한 만큼 이제부터는 안정적인 생육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장마가 지나고나면 무덥고 습한

날을 맞이한다. 이러한 환경은 병해충과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으로 작물에게는 최악의 환경이다. 무엇보다 벼에서는 집수에 의한 원일마름병, 고추 등 밭 작물은 탄저병과 역병, 다양한 곰팡이성 병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토양과 습에 의한 양분결핍증상과 호흡 불량에 의한 뿌리 썩음증상 같은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하고 적절한 토양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강한 햇빛과 더위가 지속되면 수분 흡수가 원활하지 못해 소나기에 열매가 터지거나 석회 결핍과 등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목별로 봄에 시작해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리특성이 있고, 변덕스러운 날씨와 경쟁하며 생장해가고 있다. 생육 단계별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농협생명 전북총국, 2025 Pre연도대상 시상

순창농협, 부안농협 등 수상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9일 농협전북본부에서 NH농협생명

'농협생명 Pre연도대상'은 전국 농축협 중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추진 실적이 가장 우수한 사무소와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우수 사무소 조합

장에게는 '위너스CEO'상, 우수 직원에게는 '위너스임직원'상이 주어진다.

이날 전북농협은 사무소 부문에서 △순창농협(김성철 조합장) △부안농협(김원철 조합장)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등 3개 농축협이 위너스CEO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개인 부문에서는 △은성(2명) 허창록(부안농협), 김미진(순창농협) △동상(1명) 김수경(남원농협) △철원지상(6명) 임연숙(순창농협), 김은정(부안농협), 이하나(해리농협), 김미경(순창농협), 장경화(전주농협), 조미선(부안농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생명 전북총국 지광수 총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언제나 최선의 성과를 내어주시는 전북농협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한지박물관, 무형유산 박계호 선자장 작품전 개최

합죽선 작품 기획초대전 '바람이 머문 자리' 오늘부터

전주한지박물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선자장 박계호 선생의 합죽선 작품 기획초대전으로 '바람이 머문 자리'를 개최한다.

무형유산 박계호 선생의 '바람이 머문 자리' 기획초대전은 오늘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전주한지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선보여진다.

이번 전시에는 정갈한 부채 하나에 박계호 선생의 "전통의 멋과 장인의 숨결"을 담아 고스란히 전할 방침이다.

특히 대나무와 한지, 수십 년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합죽선은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우리 고유의 미의식을 담은 생활 속 예술이다.

박계호 선자장은 아버지이자 대한민



무형유산 박계호 선자장과 기획초대전 '바람이 머문 자리'

국 명장인 선자장 박인권의 부채 작업을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접하며 수공예의 길을 걸어왔다.

더불어 전통 부채를 평생의 업으로 삼으며, 합죽선의 전통성을 지키며 창작과 실용을 아우르는 예술로 승화시켜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합죽선 작품들과 함께, 그 제작 과정과 재료의 미학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제목인 '바람이 머문 자리'는 바람을 머금고 흘러보내는 부채처럼, 관



람객들이 잠시 머무르며 전통의 숨결과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한지부채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백종일 은행장, 임원,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올해 상반기 경영 및 영업성과와 하반기 경영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또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북은행만의 영업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전북은행은 하반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핵심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 △디지털경쟁력 확보 및 플랫폼 고도화 △리스크 관리 고도화 △ESG경영·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성장하며 신뢰받는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백 은행장은 고품가로 인한 내수 침체, 기준금리 변동성, 정책 규제 변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상반기 어려운 경기 여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열심히 영업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건전성 중심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역 동반성장 및 은행 핵심전략 추진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도교육청, 전북에듀페이 목적에 맞게 사용 ‘안착’

지원 대상 약 1만1천명 설문
“잘 활용되고 있다” 85.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북에듀페이’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 까지 2025년 전북에듀페이 지원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만1,079명 중 85.3%(9,445명)가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59.4%(6,577명), ‘그렇다’가 25.9%(2,868명)로 나타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라는 인식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생 2,275명(20.5%), 학부모 8,804명(79.5%)이 참여해 전북에듀페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처 분석에서도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서점(26.2%)

이었고, 뒤이어 문구점(21.1%), 안경점(10.6%), 문화체험활동(10.2%), 독서실/스터디카페(9.3%)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6월에 열린 전북학생회의 제1회 정기회에서는 일반음식점과 교통비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에듀페이 가맹점 확대 및 교통카드 사용’ 안전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전북에듀페이가 교육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올해 전북에듀페이는 모든 학생과 학

업종단 학교 밖 청소년 17만5,000여 명에게 340여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6월 기준 전체 대상자의 약 92%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비로 인식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높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가족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공업고 졸업생 김대성, 자동차정비 국가대표 선발

내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생 김대성 씨가 자동차정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전주공업고에 따르면 내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자동차정비 직종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1차 평가전(4.26.~30.)과 2차 평가전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2024년 2월 전주공업고를 졸업한 김대성 씨가 뛰어난 실력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김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자동차정비 기술을 갈고 닦아 우수한 정비 기술을 인정받았으며,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정비 직종에서 2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자동차정비 직종 1위를 차지한 조민균(전주공업고 재학생)

학생도 이번 평가전에 출전해 2위를 기록, 자동차정비 상비군으로서 향후 대회 대비를 위한 집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발과 더불어 7월 중순으로 인천 글로벌속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될 아시아 지역 선수들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이 훈련에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선수단이 함께 참여해 실제 대회에 준하는 실전 감각과 국제 기술 교류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오홍학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동차분야 우수한 기능 인재를 배출하며 국내외 대회에서의 임지를 다져오고 있다. 이번 성과로 지역 기술교육의 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인공지능 끝판왕 ‘피지컬 AI’ 이끈다

대학 내 실증기반 인프라 구축
완주 이서캠퍼에 캠퍼스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최근 전북이 유지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시범사업을 주도한다.

이 사업은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는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북은 22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번 사업에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전북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총괄 책임을 맡아 실증부터, 인재양성, 산업화 등의 전 과정을 리드한다.

피지컬AI 기술을 전북이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실증 단계까지 전략과 과정을 주도하고, 참여 기관 간 조

율, 공간 인프라 확보, 전용 캠퍼스 조성 등의 모든 실무 과정을 이끈다.

양 총장은 전북대 내 창조 2관에 1천여 평의 실증기반 인프라 조성을 하고 있다.

전북대는 이곳에 1차로 로봇 기반 피지컬AI 기술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AI 산업용 로봇 기술 개발 및 테스트 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완주 이서캠퍼스를 개발해 5만5천평(약 18만㎡) 규모의 피지컬 AI 전용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전북대 산업용 로봇 AI랩을 비롯해 현대차 피지컬AI 캠퍼스, 네이버 피지컬AI 캠퍼스 등이 집적화 된 세계 최고 수준의 ‘산학연 피지컬 AI 밸리’가 만들어진다.

이 밖에도 카이스트, 성균관대 등과 공동으로 특화된 AI 통합 플랫폼 설계 및 운영지원사업단이 구축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포럼 운영을 통해 국내외 피지컬AI 핵심 기업 및 연구기관과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피지컬AI를 이끄는 최고 대학으로 부상하고, 전주와 완주 지역 역시 피지컬AI 메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는 생성형 AI를 뛰어넘는 AI 기술의 정점으로, 세계 어느 국가도 주도하지 못한 분야”라며 “전북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총괄 책임자로서 세계 최고의 피지컬AI 밸리를 빛의 속도로 구축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주권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설계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를 전북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전북대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대가 중심이 되어 전북을 세계적인 피지컬AI 전진기지로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업의 유지에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피지컬AI 예산 229억 원을 2차 추경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 개소

“예비창업자육성 허브로 성장”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창업지원단(단장 김상진)은 지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로컬창업자육성에 나섰다.

‘JB로컬스타트업빌리지’는 전주대학교가 주관하는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밀착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 거점 공간이다. 입주 창업팀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은 우리나라 최장수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크립톤이 맡는다.

개소식은 9일 전주시 남부시장 내 ‘모

이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진 창업지원단장(전주대,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사업 총괄책임자)을 비롯해 김시열 교수(전주대 로컬벤처학부장), 서난이 의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신유정 의원, 최서연 의원(이성, 전주시의회), 오귀성 회장(남부시장상인회), 그리고 입주 창업팀과 유관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주대학교 로컬콘텐츠중점대학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상진 교수(창업지원단장)는 “JB로컬스타트업빌리가 지역의 로컬창업을 이끌어갈 예비창업자 육성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주대학교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한전 전북본부, 전력사업 본격 나서

지역기반 기술개발·시제품제작

국립군산대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사업의 지역기반 기술개발과 시제품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은 국립군산대 군산강소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소기업들과 한전 전북본부 인력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제품 제조 생태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기술 자립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자체 아이디어(자제 ID)를 실증 가능한 시제품으

로 제작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시제품 제작 인프라 활용, 기술이전과 특허 공동출원 등 실질적인 기술사업화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군산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장민석 단장은 “군산지역의 RE100, 분산에너지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위한 한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를 요청했다”며 “강소특구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신태용 명예교수, ‘단체 신곡통해본 중독 회복’ 출간

마약류 중독자 회복 위한 책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신태용(약학과)(사진) 명예교수가 ‘마약류 중독, 단체 신곡에서 길을 찾다(투즈)’를 출간했다.

이 책은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헌신해 온 저자가 단체의 고전 ‘신곡’ 속에서 중독자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를 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은 △마약류 중독자에게 주는 신곡의 메시지 △나의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와 함께하는 단약여행 △재발에 대하여 △중독에서 천국으로 △단약을 도와주는 안내자의 자세 등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곡’을 접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부록에 ‘신곡의 줄거리’를 수록했다.

특히 약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이 책



은 철학자나 문학자 중심의 기존 해석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며, 중독자뿐 아니라 중독 회복자와 중독자 가족, 상담자, 봉사자 등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신태용 명예교수는 “단체의 여정을 따라가며 중독의 고통과 회복의 과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라며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태용 명예교수는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장과 학술정보처장, 평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전리복도약사회 부회장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장 등을 지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읍면 이장단 순회 간담회 폭염 대비 현장 목소리 청취

정읍시가 민선8기 시정 철학인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5개 읍·면 이장단과의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시는 9일 신태인읍을 시작으로 산외면까지 총 15개 읍·면을 돌며 이장단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닌,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장들은 각 마을의 지형, 배수 여건, 취약지역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 파트너로서, 시는 이들의 의견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정읍시가 지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실질적인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5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엑스포 참가를 통해 지역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엑스포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개국 350개 기업이 참여하고, 총 450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가운데 7개 부스를 확보해 지역 발효식품 관련 경영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조립식 부스를 제공하고, 부스 입차비 전액(개소당 250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다.

참가 자격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발효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경영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정읍시청 농촌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군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과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지난 8일 진행된 캠페인에는 선유도주민 통합위원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유도해수욕장 일원 민박, 음식점,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상가를 방문하여 음식점 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부당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했다.

이외에도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차세대 CCU 실증사업' 협약

총 235억 규모 친환경 합성 원유 생산 목표

군산시가 9일 시청에서 '차세대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고도화 실증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충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강임준 군산시장·한성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엄기욱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실증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되었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학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해 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CCU 통합공정 개발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 △전북도와 군산시는 행정적 지원 △군산대는 실증 지원·인재 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235억 원(국비 186억 원, 전북도 15억 원, 군산시 20억 원, 민간 14억 원)이며, 최종적으로는 산업단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수전해 수소를 활용해 친환경 합성 원유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합성 원유의 정유 공정을 통해 지속 가능 항공유, 합성 디젤, 합성 휘발유 등의 상용화를 진행한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전환하는 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화학·에너지 분야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군산시가 9일 시청에서 '차세대 CCU 술고도화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군산시>

또한 정정수소 수요를 확대하고, 기술 내재화와 장비 국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군산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e-Fuel(이퓨얼)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 협약은 군산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칠보면 석탄마을 158억 투입

정읍시 칠보면 석탄마을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정읍시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준비한 결과물이다.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모신청서를 작성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1차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2차 대면평가를 통

과하며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다. 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총 15억 8000여만원(국비 10억 5100만원, 지방비 4억 1300만원, 자부담 1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보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위생·교통환경 개선,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다양한 생

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인 석탄마을은 슬레이트 지붕이 전체 가구의 53.1%에 달하고, 노후화된 담장과 좁은 진입로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왔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은 물론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에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 안전 최우선’...익산시, 폭염 대응 강화

그늘막 설치·살수차 운영 등 폭염 민감 대상 예찰·보호

익산시가 지속되는 폭염상황에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익산 지역은 지난 7일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를 이상 계속되거나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3개 반 52명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특별팀(TF)'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무더위 쉼터 50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해 173개의 그늘막을 주요 교차로에 설치했다.

시는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폭염 대책 기간인 오는 9월 말까지 주 1회 이상 무더위 쉼터를 방문 점검하고 추가 지정을 검토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 28곳에 오전·오후 1회씩 대형 얼음과 생수를 비치해 시민들이 시원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폭염경보 발효 시 주요 간선도로도 35km 구간에 살수차 4대를 운영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한다.

시는 독거노인, 거동불편인 등 폭염 민감 대상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이장,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1,700여 명의 재난도우미가 지역 내 폭염 민감 대상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읍면동장 책임제' 운영을 강화해 읍면동장이 직접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상황과 건강 상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건설현장 105개소의 온열질환 예방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폭염이 심한 경우 야외 작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을 통한 행동요령 안내 등 예방 중심의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초등돌봄 도시락 무상 제공

방학 중 결식 예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시가 방학 중에도 끼니 걱정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29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1,100여 명에게 '초등돌봄 건강 도시락'을 무상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초등돌봄 건강 도시락 사업은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동안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겨울방학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년째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참여 학교가 2곳, 학생 수가 약 200명 늘어나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아울러 도시락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 아동 건강을 챙기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먹거리 선순환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익산교육지원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도시락 제조 및 공급 과정의 위생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군산시의회, 청렴도 제고 위한 협약 체결

2024년 청렴도 5등급 반성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9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한 지방행정 실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모두 5등급(최하위)을 받은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면적인 청렴 개선과제를 실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양 기관의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부정청탁·감질 등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약서를 교환하며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부정청탁, 권한남용, 감질 등 부당행위 예방 △계약, 인허가, 보조금, 세제 등 청렴 취약분야 개선 △청렴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한 신고 체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청렴도 평가결과와 공동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또한, 양 기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청렴정책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필요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약사항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적되었던 인사 및 보조금 등 중점 개선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천 가능한 협력 구조를 담고 있으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함께 청렴의 기준을 다시 세워나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역사회에 천명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 체결

익산시가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섰다.

익산시와 익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9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정현율 익산시장과 김민철 공무직노조 위원장, 노조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조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인정 기간 확대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노조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도 후생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6년도 국가예산 확보...기재부 심의 대응나서

김영민 부시장, 기재부 방문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하여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였다.

김 부시장은 기재부 기후환경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안전예산과 등 소관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군산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견학한 군산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녹색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군산철길숲 확대 조성사업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어

민들을 위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노후 상수관 망 정비를 통한 수질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나운1·2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초촌지구 풍수에 생활권 정비, 미룡·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우리시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하여 기재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이달부터 기재부 심의 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이통장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시민의 손과 발, 감사합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이통장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이통장연합회 임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단과 총무, 재무 등 6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까지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주시는 이통장님들의 노력에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주요 시정 성과도 소개됐다. 시는 행정 혁신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하며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약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과 재정효율화를 통해 각종 시민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통장들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에 공감

을 표하며, 시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 각 지역의 현안과 민원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통장들이 전달한 의견에 대해 부서별로 답변하고, 향후 시정 운영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이통장연합회의 자체 안전 교육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이번 소통의 자리를 계기로 이통장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남은 민선 8기 기간 동안에도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시,개미마을주민들에공유지매각

총 17명 주민
강제이주 50년 만에
주택·농지 소유권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고충 해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매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부지와 농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들 주민은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이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부모 가운데 생존자는 단 2명뿐이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량한 점을 반영해 개량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시는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 2월 6일 주민대표와 정성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 주민설명회, 4월 김제시의회의 의견 수



김제시가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고충 해결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진=김제시>

령을 거쳐 약 2달간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그간 마을 진입로 확장,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주택과 농지를 되찾은 주민들은 감격의 심정을 나타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시는 이원택 국회의원, 산림청,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수차례 현지조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숙원인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성주 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매각을 넘어,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준 의미 있는 행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시거마을, 주거환경 개선 21억 투입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추진

호남방어의 요충지 무장읍성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고창군 무장면 시거마을에 21억원을 들여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무장면 시거마을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최대 15억원 포함한 총사업비 약 21억원이 확보됐다.

시거마을은 무장장이 생기기 전에 상점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다고 해서 시거마을로 불리며 무장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마을전체 주택 절반 이상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낡고 오래돼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마을환경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업들이 추진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장면 시거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해 주민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퀵스타트 공모 선정...(주)한우물 지원

정부주도형 인력양성사업
국비 등 3억8천여만원 투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가 1967년부터 시행한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것으로 공장 자동 시점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미리 교육하고 채용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정부 주

도형 인력양성 사업이다.

시는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 등과 함께 내년 3월까지 국·도비 1억8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7천6백만원을 투입해 국내 1위 냉동밥 전문회사로 우리시 향토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의 인력 채용을 도울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은 328억원을 투자해 오는 8월 제3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규 사업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선발해 약 4주간의 기업 맞춤형 교

육 및 현장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지방투자 이행의 부담을 덜게 됐다.

수로 후 취업에 성공하는 교육생에게는 275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김제시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사업장 가동 전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제시가 지방투자 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벼 병해충 방제 선제 대응 총력

애멸구·이화명충 등
22일까지 공동방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짧은 장마후 이른 무더위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삼습 병해충 발생 포장을 대상으로 예찰한 결과 애멸구 발생량 급증과 이화명충 피해가 일부 확인돼 벼 병해충 선제 방제에 대응

에 나섰으며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을 정해 전읍면 12,000ha 논에 선제적 병해충 차단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부안군은 전면적에 대해 약제를 50% 지원하고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2024년 직불제 대상 벼와 논농, 가꾸살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연중화됨에 따라 지난 3월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으로 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했고 이번 기본방제 기간에 모든 농가들이 참여해 방제 효과를 높이고, 방제시 PLS 및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으며 벼 병해충 발생 선제적 대응 고품질 쌀 안전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예술인, ‘하이라이트 인 서울’ 전시

16일~21일까지 인사동서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인사아트에서 부안 지역 예술인 단체전 ‘하이라이트 인 서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지역 예술인들이 서울이라는 주류 미술시장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실험하고 검증받으며, 지역과 수도권 예술계 간의 교류를 시도하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이번 서울전시는 2023년부터 지역예술인의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지원사업 ‘하이라이트’의 일환으로

올해 사업에 선정된 7인의 시각예술인 작품으로 개최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서울은 여전히 기회의 문턱이자,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부안 예술의 ‘지금’을 소개하고, ‘부안’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창작 배경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묻고자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전시에는 △강의석(도예) △박경식(설치미술) △안미정(도예) △오현영(일러스트) 등 총 7인이 참여하며,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탐색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AI 기반 디지털 건강관리체험 운영

디지털 격차 해소 나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AI기술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체험을 운영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진흥중심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KTCS와 손잡고 진행하는 협업체너지 디지털 교육사업으로 노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술과 노년층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첫 교육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

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7.5%로 특히,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1.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에 김제시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 건강을 테마로 한 찾아가는 체험형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참여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디지털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14개국 글로벌 사절단, 고창 문화체험 즐겨

콘텐츠 제작 각국에 소개

오는 10월 열리는 ‘고창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14개국 20명의 ‘글로벌 사절단’이 고창군을 찾아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겼다.

사절단은 지난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고, 박물관 견학, 판소리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진행했다.

‘글로벌 사절단’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20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서포터즈다. 올해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제주, 광주, 순천, 고창 일원의 세계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한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체육꿈나무 격려금 1,310만원 지급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시행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9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체육꿈나무 격려금 증서를 전달하고,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육꿈나무 격려금 수여 대상은 △김산초 최담희 학생(메드민턴, 단체 2위)과 △금산중 박지후 학생 외

17명(축구, 단체 1위)으로,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김제의 위상을 높인 주역들이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지역의 우수체육 인재 양성을 위해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소년체전·전국체전 1~3위 입상자와 전북도민체전 1위 입상자에게 각각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인구문제 시민 관심 제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6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6회 인구의 날을 기념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을 기념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며 공동 대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로 6화째를 맞이했다.

특히 김제는 지난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지속되던 인구 감소세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반전시키며, 인구 증가세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인구정책 유공 시민 및 단체 13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으며,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관내 기업인 6명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창작 뮤지컬 <비커링 맘>은 280일,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주제로 임신과 출산, 가족문화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의 깊은 공감과 눈시울을 자아냈다. 인구의 날 취지와도 부합해 큰 호평을 받았다.

정성주 시장은 “인구감소 위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람 중심, 시민 공감의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외국인계절근로자대상 무료 영화관람 ‘작은영화관’ 운영

고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작은영화관’ 무료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로자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영화관람은 문화적 소외를 겪기 쉬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쉽고 힐링, 그리고 지역 사회의 따뜻한 환대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단순 노동력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창의 중요한 농업 동반자로 인식하며, 근로자의 문화·복지 여건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번 영화관람 외에도 △문화체험 및 무료관광 △무료 건강검진 △사랑의 옷 기부행사 △삼겹살 파티 △하녀의료공제가 입 △언어소통도우미 책자 배부 등을 통해 인권존중과 체류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창 농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장애인체육회 4개 시·군 합동 워크숍 성료

부안군장애인체육회(회장 권익현)는 최근 부안군 일원에서 ‘2025년 부안·청주·홍성·홍천 장애인체육회 합동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 장애인체육회 간 공통 과제 해결과 정책 협력, 행정 실무 정보 공유, 친목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부안군 14명, 청주시 16명, 홍성군 15명, 홍천군 11명 등 총 56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부안군 장애인체육회장)는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이며, 부안군은 장애인체육회의 무한한 가능성이 더 큰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확대해 따뜻한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전달했다.

또한 “체육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인 사회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체육의 통합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팀 가동

정책 신속 대응 위해 TF 구성 21일부터 최대 40만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추가 5만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실행체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이번 소비 쿠폰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 이 될 것으로 보고, 행정 시스템과 내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TF’는 남원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실무진의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자 분석, 시스템 준비, 유관기관 협조, 각종 문의사항 대응, 신속집행을 위한 홍보 등 세부 업무를 나눠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

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 방침을 주시하여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지급되며,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남원시의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 주민들과 봉동 소각장 설치 반대 뜻 모아

전북지방환경청에 의견서 제출 “거짓 주민설명회, 사기 행위”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군 봉동 폐기물 소각장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설치 반대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8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삼비테크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6월 완주산업단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업체의 이익에 치우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법적 절차로서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용해 주민을 기만한 점 ▲산업단지 분양물 및 입주 현황 왜곡 ▲근거 없는 기대 효과 제시 ▲허위 시설 소유권 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됐다.

이날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전북지방환경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



완주군 김재천 부의장은 지난 8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완주군의회>

한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군 봉동 폐기물 소각장은 봉동을 구암리 일원 약 1만 7,766㎡ 부지에 추진 중인 스토커 방식 폐기물 소각시설(27기)로, 하루 최대 189.6톤의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갖춘 대형 시설이다. 이 중 일반폐기물은 132.72톤, 지정폐기물은 56.88톤을 차지한다.

㈜삼비테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장기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 절차는 진행 중이다.

완주군도 주민 반발과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한 상태다.

김 부의장은 “이 같은 거짓 주민설명회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환경기초시설은 반드시 공공성과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며, 사익을 위한 주민 기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법 불법 폐기물 사대의 교훈을 잊지 말고, 완주군민이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북지방환경청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둘째 자녀까지 양육비 지급 확대

8월부터 지원…경제 부담 완화 매월 10만원 단계적 확장 지급

완주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9세 둘째 자녀 이상 자녀로, 2025년 9세, 2026년 9~8세, 2027년 9~7세, 2028년 9~6세까지 매년 단계적

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6~9세까지 지원 받는다.

군은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생 자녀 가정 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소재지 주막 개점,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7월 한달 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완주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발효기술, 세계적 연구기관과 손잡고 국제 도약

네덜란드 와게닝겐 식품연구소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방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최근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이 방문했다. 와게닝겐 대학은 세계 식품과학 분야 1위 대학으로, 이번 방문은 전북 지역 식품·바이오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진흥원의 연구 인프라, 미생물 자원 현황, 국제사업 추진 상황 등을 폭넓게 공유받았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과 진흥원의 미생물 분야·보존 및 산업화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연구진은 현장 견학을 통해 발효 플랫폼, 기능성 평가 시스템, 미생물 저장 기술, 품질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진흥원의 기술력과 산업 적용 가능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방문했다.

<사진=순창군>

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와게닝겐 연구소는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다수 주도해 온 세계적인 농식품·생명과학 연구기관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가능성도 논의됐다.

정도연 진흥원장은 “이번 교류는 전북 식품바이오산업의 국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미생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의 세계 진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개막 100일전’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준비 돌입

20주년 맞아 대폭 확대 체험형 콘텐츠 강화

오는 10월 17일 막을 올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순창군은 축제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통과 현대, 체험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형 체험 축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축제 20회를 기념하는 해인 만큼, 내용과 형식 모두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축제 대

표 프로그램인 ‘임금님 진상행렬 발효나라 1997’은 더욱 풍성한 연출과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와 이벤트, 기념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축제 속의 축제’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리는 순창예술제도 눈길을 끈다. 부무대에서 펼쳐지는 예술제는 순창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공연으로, 지역 예술역량을 널리 알리고 군민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관람객 편의와 환경을 고려한 변화도 시도된다. 발효테마파크 잔디광장을 쉼터로 조성하고, 친환경 축제를 위해 다용기 사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서 국내 최대 생활체육선수권 당구 열전

문체부장관기 전국선수권대회 캐롬·포켓·스누커 전 종목 진행

스포츠 명품도시 남원시(시장 최경식)에서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당구대회 및 2025 남원 전국당구선수권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국내 최정상급 당구선수들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당구연맹, 전대북당구연맹, 남원당구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하리우드 등에서 후원한다.

선수 및 심판 등 1,6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캐롬, 포켓, 스누커 등 전 종목 최상위 랭커들이 총집합해 수준 높은 경기와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며, 특히 캐롬 8구선 허정환 선수가 참가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히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마련돼 시민과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행사 기간동안 유소년 당구 선수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이 진행돼 차세대 스포츠 인재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당구 컬링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당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더불어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미니 수영장존도 운영된다.

이번 문체부 전국 생활체육당구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구 축제로 당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생활체육으로서 당구의 인지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누에, 유아 문화 융복합 ‘예술 놀이터’ 가동

유아 창의교육 ‘깨금발 놀이터’ 도 16개 기관·350여명 참여

예술중심, 놀이중심, 유아중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 복합문화지구 누에의 대표 사업 ‘2025 유아문화예술교육 : 깨금발 놀이터’가 본격 시작했다.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도내(완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진안) 16개 유아교육기관 어린이가 350여 명과 함께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이 총128시수에 걸쳐 11월까지 누

에 곳곳에서 펼쳐진다.

올해 ‘깨금발 놀이터’는 #느림, #함께, #기다림, #성장을 주제로 아이들이 예술로 무엇이든 시도하고 놀아볼 수 있는 열린 창의놀이터로 마련됐다.

‘22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깨금발 놀이터’는 유아교육 전문가와 지역예술가들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5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운영 중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전국실업불링대회 14일 개막

8일간 25개팀 380여명 참가

스포츠 명품도시 남원시에서 ‘남원한국실업불링연맹 전국 실업불링대회’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남원 숭불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실업불링연맹과 남원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불링연맹과 남원시불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실업팀 380여명이 5개 종목에 참가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인재학당 네이밍 공모 130만원 상품권 수여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남원 인재양성 사업의 전환점이 될 남원 인재학당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

남원 인재학당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지역의 인재가 대도시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남원시의 핵심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2026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남원 인재학당 건립 취지에 맞는 의미있고 참신한 새 이름을 찾기 위하여 실시되며 남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이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에는 최우수분야 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0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재학당을 남원의 미래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으며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며 멋진 세이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 일제 정리 징수활동 전개

순창군은 수도요금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4개 팀, 총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단수 조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해 납부 독려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정리의 중점 대상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군은 우선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납부 의사가 없을 경우엔 한해 단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체납 요금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상하수도/환경’ 메뉴에서 새롭게 구축된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직접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군민 제안 창구’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위촉

완주군이 지난 8일, 중앙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촉하는 시민 참여단체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이나 개선사항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이날 남만우 대표 외 4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완주군 참여단은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생활현장을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소연 행정지원과장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이번 참여단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군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진안군 청년캠프, 진안소방서에 직접 만든 샌드위치·커피 전달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청년캠프 ‘꿀벌활동단’ 참가자들이 지난 8일 진안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커피 50인분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갑작스러운 더위로 출동이 잦아진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꿀벌활동단’의 한 참가자는 “폭염속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 사랑의 중식 봉사활동

보훈 대상가정에삼계탕 전달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회장 안병숙)는 9일 전주연탄은행 1층(완산구 팔달로 31-2)에서 ‘사랑의 중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여성기업인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 진행된 이팝나무 행사 운영 수익금으로 준비됐다.

여성기업인들은 이날 보훈 대상 40가정에 삼계탕과 케이크를 대접하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했다.

안병숙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봉사에 나서준 여성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봉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회장 안병숙)는 9일 전주연탄은행 1층(완산구 팔달로 31-2)에서 ‘사랑의 중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진=전주시여성기업경영인협회>



완주 어르신 키오스크 체험 “이제 낯설지 않아요”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센터장 안정현)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실생활에 밀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이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구이면에 위치한 ‘소야’ 음식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70여 명과 함께 ‘터치-터치 키오스크’ 실버디지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메뉴를 직접 선택하고 주문, 결제까지 해보며 “다음에는 혼자 와도 문제없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운봉읍, 출생아 출생축하금 지급 행사 개최

“우리가 함께 키웁니다”

남원시 운봉읍은 지난 7일,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출생아 출생축하금 지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출생축하금 대상자 가족과 운봉읍장, 관내 기관·단체장, 사단법인 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생명의 탄생은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하 인사, 케이크 커팅, 출생축하금 전달, 기념사진 촬영까지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신동열 이사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운봉의 희망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협회도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군여성회관 제빵 수강생들, 경로당에 단팻빵 100개 전달

고창군이 지난 8일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빵기능사 자격증반 수강생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단팻빵 100개를 만들어 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성회관에서 운영 중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빵기능사 자격증’ 과정의 일환으로, 수강생 15명이 참여해 정성 가득한 수제 단팻빵 100개를 만들었다.

단팻빵은 고창군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역량강화사업에서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 나눔을 통해 선순환 봉사를 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시, ㈜하림과 함께 ‘다이로움 밥차’ 운영

익산시는 9일 이리중앙교회에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다이로움 밥차’를 운영했다. 이날 다이로움 밥차는 ㈜하림과 하림 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따뜻한 손길이 더해져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하림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하림에서 생산된 삼계탕과 치킨류 등을 정성껏 조리하고, 배식 활동에 참여했다. 이리중앙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용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건축사사무소 보원 임대현 대표, 고창군에 300만 원 기탁

건축사사무소 보원 임대현 대표가 고창군에 지난 8일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임대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 동안 고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임 대표는 “고창은 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고장이라고 말하며 이곳을 내 마음속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부금이 고창군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뜻깊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명일책임해양 김문용 대표, 군산시에 1천만 원 기탁

군산시는 관내 소재 강소기업인 명일책임해양(주) 김문용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며, 군산 발전을 위한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명일책임해양(주)은 1998년 설립 후 2019년 분사 및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였고 2025년 군산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는 해상작업용 책임 바지선 및 해상구조물 제작에 특화된 기

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해양기자재 전문 기업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문용 대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군산시에 장학금 기탁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원장 배정철)이 군산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5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군산시를 방문한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형미래선박본부(원장 배정철, 본부장 조민호)가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뜻깊은 마음을 교환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8일 기탁식에 참석한 배정철 원장은 “군산은 조선 해양 산업

의 중요한 거점이다. 이에 지역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끌어낼 미래산업 분야에서 꿈과 역량을 키워나갈수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금은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신선수산 박광석 대표, 군산 어르신들께 새우 100kg 전달

군산시 옥서면행정복지센터는 신선수산 박광석 대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신선한 냉동 새우 100kg을 옥서지역 내 경로당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기탁받은 새우는 옥서경로당 외 20개소 경로당에 전달되어 경로당 급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우를 전달받은 어르신들은 “날이 더워 입맛이 없었는데, 맛있게 먹고 더위를 이겨내겠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음식은 꼭 익히드세요	물도 급격적이면 끓여먹어요	세척 및 소독하기	구분해서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2 육류 중심온도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도 이상 익히 드세요.	3 물은 10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도록 해요.	4 식재료와 조리도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햇빛에 꼭 소독해주세요.	5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6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18도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一事一言〉



전쟁 문턱까지 끌고갔던 정권의 안보 조작질(2)

김종대
국방전문가·전 국회의원

작년 9월에서 10월로 이어지는 인위적인 긴장 조성 시점에 한국 군부는 계엄의 여건 조성을 넘어 결정적 작전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광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은 올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해 10월 초에서 중순 전후로 기억한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합참 지통실(지휘통제실)에서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안포 사격훈련에서 드론 투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작전은 이미 그 1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정황도 있다.

2023년 11월 15일, 합참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서북도서 도발 시적 4군단 합동타격계획’ 문건을 작성했다. 민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 4군단 전체 지휘소와 통신시설, 병영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2024년 1월 4일, 타격 대상은 적 2, 5, 1군단까지 확장됐다. 내부에서는 “이 문건이 실제로 발동되면 전면전”이라며 실행 불가 방침을 전제로 만들었다고 증언한다. 범부실은 이 작전의 발동 조건을 제한하기 위해 ‘결심조건표’를 작성했고, 합참은 결국 2024년 4월부터 해당 계획에 기반한 실전 훈련을 시작했다. 이 문건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2024년의 해상 사격훈련을 이어서 보면 단순히 북한의 도

발 대응이라기보다,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에 대한 전면 타격 훈련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북한 전역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의 핵심 위에 올라 있었고, 지휘 체계는 “미국이 눈치채기 전 쯤에 시범행동”을 기조로 움직이고 있었다. 군이 아니라 권력이 먼저 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아파치 헬기의 실탄 무장 비행이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한 비행을 한 조종사는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헬기는 평시와 다른 항로를 실탄을 장착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군 당국은 이를 ‘정상적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종사들은 “도발을 유도하려는 위협 비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비행을 ‘전면 도발’로 간주했고, 서해함대의 방공 태세를 격상시켰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북한이 대응 사격을 했다면? 군은 이미 준비된 타격계획에 따라 전면전을 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2024년 초에도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던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정은은 절대 전면전을 하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며, 전쟁 걱정 없이 북한을 마음껏 자극하도록 국군을 고취시켰다. 즉·강·끝이라는 구호로 북한에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면, 북한이 대응하면 끝까지 응징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북한

이 혼란에 빠져 정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나름 전략적 계산도 있었다.

2023년 11월부터 작성된 북한 전방군단 전면 타격계획 문건은 이미 훈련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이 머뭇거렸나 보다. 이에 격분한 김용현은 합참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고 질타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김용현의 결전 의지는 계엄 선포로 직결되었다. 12월 초에 김용현은 다시 광종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오물풍선을 원점타격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작전 대기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다. 한편 GOP 전방부대에서는 K-30 비호에 예광탄을 장전하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하늘을 향한 경고사격 준비까지 마쳤다. 말이 경고사격이지, 이 또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도발을 기다렸고, 신호탄 하나만 터지면 모든 것이 의도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군 내부에서도 “절대 실행돼선 안 되는 계획이었다”는 인식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문건은 작성되었고, 훈련은 실행됐으며, 타이밍은 정치일정과 정확히 맞물렸다. 2024년 가을, 우리는 북한과의 전면전 문턱까지 갔다. 그러나 그 전쟁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용현이 기획했고, 무기는 국방

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꺼냈다. 평양에 날아간 드론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이었고, 백령도에서 쏜 포탄은 방위와 아니라 방산 쇼케이스였다. 아파치의 위협비행은 작전이 아니라 연출이었고, 합참의 책상 위 문건은 전쟁이 아니라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런 일련의 작전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허접한 드론이 평양에 추락되도록 하여 비행제원과 비행기록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간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적행위의 진짜 목적을 따져보면, 백령도 인근에서 비행해 평양으로 날아간 드론으로 인해 서해 방어망이 붕괴된 것을 알게 된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면 언제든지 남북 간에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를 국내 언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로 증폭시켜 계엄을 선포할 여건 조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는 무너진 적이 없다. 다만 조작된 적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조작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 제도 보완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은 여전히 부재하다. 행정구역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제도적 지위나 권한, 재정 체계는 기존의 광역자치도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고 ‘지역 가중치 예산 편성’과 ‘수도권 1극 체제 전환’을 공언했다. 특히 최근 대전 탄소홀미팅에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지역 간 형평성과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명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만 점차 균형발전의 상징적 대상이 되야 할 전북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 없이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곧 국정 철학과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 시작은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권한과 자율성 부여다.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도 명확하다. 충청권은 공공기관 이전 불균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도권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전북이 제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제도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과 농생명 산업 전환 등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완수할 수 없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없으면 이들 사업은 장기 표류하거나 반쪽짜리 성과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완화 특례 도입이 필요하고 둘째는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 우선 배치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권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전북형 개발사업에 적합하도록 유연화하고 지역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장치 없이는 ‘특별’이라는 수식어는 공허한 명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철학이 진정성을 갖추려면 ‘차별 없는 지역, 균형 있는 국가’라는 기조가 제도와 예산,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다. 이제는 전북형 특별 권한을 국가정기위원회 등 정책 설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전북이 균형발전 대전환의 상징이자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전북출신 고위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중용되면서 지역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제도가 따라야 한다. ‘특별자치도 전북’이 진정한 자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닌 실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를 ‘실질 자치도’로 바꾸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열전



대원사 용각부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유적건조물, 불교, 탑
-지정일 - 1976년 4월 2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3 (원거리)

▲오늘의시

빈 컵 / 박목월

빈 것은 빈 것으로 정결한 컵	빈 것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는 나의 창조의 손이 장미를 꽃는다
세계는 고드름 막대기로 꽃혀 있는 겨울 아침에 세계를 마른 가지로 타오르는 겨울 아침에 하지만 세상에서	당신이 서늘한 체념으로 채우지 않으면 신앙의 샘물로 채운다	로오즈 리스트에서 가장 매혹적인 조세페느 볼르느를 투명한 유리컵의 중심에
시인 약력 : 1915년 경남 고성 출생. 대구 계성고 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대구 계성중학교와 서울 이화여고에서 교사를 했다. 1959년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문리대 학장을 역임했다. 1933년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청록	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군가인 '전우'를 비롯 포스코, 한국일보 사가 등 을 작사하기도 했다. 1978년 영면에 들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뉴스 1991년 4월 4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법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장수지국 010-8626-6049	원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소중히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줍시다

JBT

전북

전도

북민

타을

임위

스한

신신

문문

광고문의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구독신청 063)282-9603 https://www.jeonbuktimes.co.kr

청년농 현장을 가다

혁신으로 농촌 내일을 그리는 완주
다육농장 성혜원

스마트 농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변화이다.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AI, IoT,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분산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 종사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작물 생육 조건을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스마트팜 시스템은 농업의 모든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육식물에 적용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다 풍요로운 미래 농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으로 다육식물에 키트형 스마트 팜을 적용한 완주 성혜원 대표를 만나본다.

1. 익숙함 너머의 도전:

새로운농법 또는기술 도입의 서막

전북 완주군 다육농장의 성혜원(29)씨는 귀농 5년으로 프로골퍼의 꿈을 접고 농업의 길로 들어선 청년농업인이다.

부모님 세대가 운영해온 전통적인 다육농장을 물려받으며 그녀가 직면한 것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였다.

“소비자들은 더욱 식물 구입에서 더 나아가 키우는 방법과 체험까지 궁금해했어요. 초보자들이 ‘언제, 얼마나 물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해 부족이었다.

“처음 개별 화분형 키트를 제작했는데, 각각의 화분마다 환경 데이터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같은 다육식물인데도 화분 위치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달랐고, 어떻게 표준화해야 할지 막막했죠”

더 큰 시련은 키트의 표준화 문제였다. 개별화 분마다 센서 반응이 달라 일관된 관리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다. 초기 키트를 사용한 고객들로부터 “어떤 화분은 잘 자라는데 어떤 것은 시들어간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러한 시도는 수익 구조의 다변화로 이어졌다. 기존의 다육식물 판매 수익 외에 키트 판매, 체험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등으로 소득원이 확

“키트 개발을 고민하는 분들
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 관
점’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기
복잡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는
키트를 최대한 간소화하되, 학
습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
향으로 개발했습니다”

성혜원 씨는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에요. 키트를 통해 사람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일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청년농
업인 창업지원금과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
어요”

4. 지속 가능한 농업, 함께만드는 미래:
희망찬 비전 제시

농을 고려하거나, 농산물
직거래에 참여하는 등 농업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성혜원 씨는 향후 다육식물 스마트팜 키트 사업을 통해 “농업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키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또한 키트 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농장 견학, 농산물 직거래 등을 연계해 농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녀의 비전이다.

안주군농업기술센터 전영옥 인력육성팀장은 “농업은 재배 중심의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과 체력, 교육이 결합될 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AI, IoT, 빅데이터 등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접근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이르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며 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개별 화분형 스마트 키트를 들고 미소 짓는 성혜원 씨의 모습에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재배에서 체험으로,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확장
해가는 그녀의 도전이 많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상훈 기자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 포착한 농업인 지혜 다육식물에 키트형 스마트 팜 적용

그때 그녀가 착안한 것이 '개별 화분형 스마트 팜 키트'였다. 기존의 대규모 스마트팜과 달리, 개인이 집에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키트 형태로 다육식물과 IoT 기술을 결합하는 아이디어였다.

각각의 화분에 온도, 습도 센서를 장착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다육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 시행착오의 기록:

낮선 길을 헤쳐 나간 좌충우돌 경험담

첫 스마트팜 시설 도입시기. 성혜원 씨의 도전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 이

3. 지혜를 나누다: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과 조언

그동안의 스마트팜 운영 경험을 통해 성혜원 씨가 얻은 교훈은 “기술은 만능이 아니며, 농업인의 경험과 직관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